

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(2011.4.20)

[목차]

요약	2
I. 시리아 사태 개요 및 현황	3
II. 시리아 사태 전망	6
III. 현지 동향	7
IV. 우리기업 유의 사항	8
참고. 한-시리아 진출기업 및 교역 현황	10

작성 : 중아CIS팀 한석우 과장(swihan@kotra.or.kr)

감수 : 중아CIS팀 김용석 팀장(ysk@kotra.or.kr)

1. 시위 현황

- 위성방송으로 자스민 혁명 소식을 접한 철없는 아이들의 반정부 낙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시위가 시작(2011.3.18.)
- 국민들의 억압된 감정 분출, 부정부패 해소/ 비상사태법 폐지/ 자유·민주화 등 요구 사항이 점진적으로 확대
 - * 시리아 정부, 4.19(화) 비상사태법 폐지 승인
- (반정부 시위 요인) ① 48년간 지속된 ‘비상사태법’ ② 41년간의 장기 세습 통치 체제 ③ 다양한 인종 및 종교(종파)의 혼재, 소수의 시아파가 권력 독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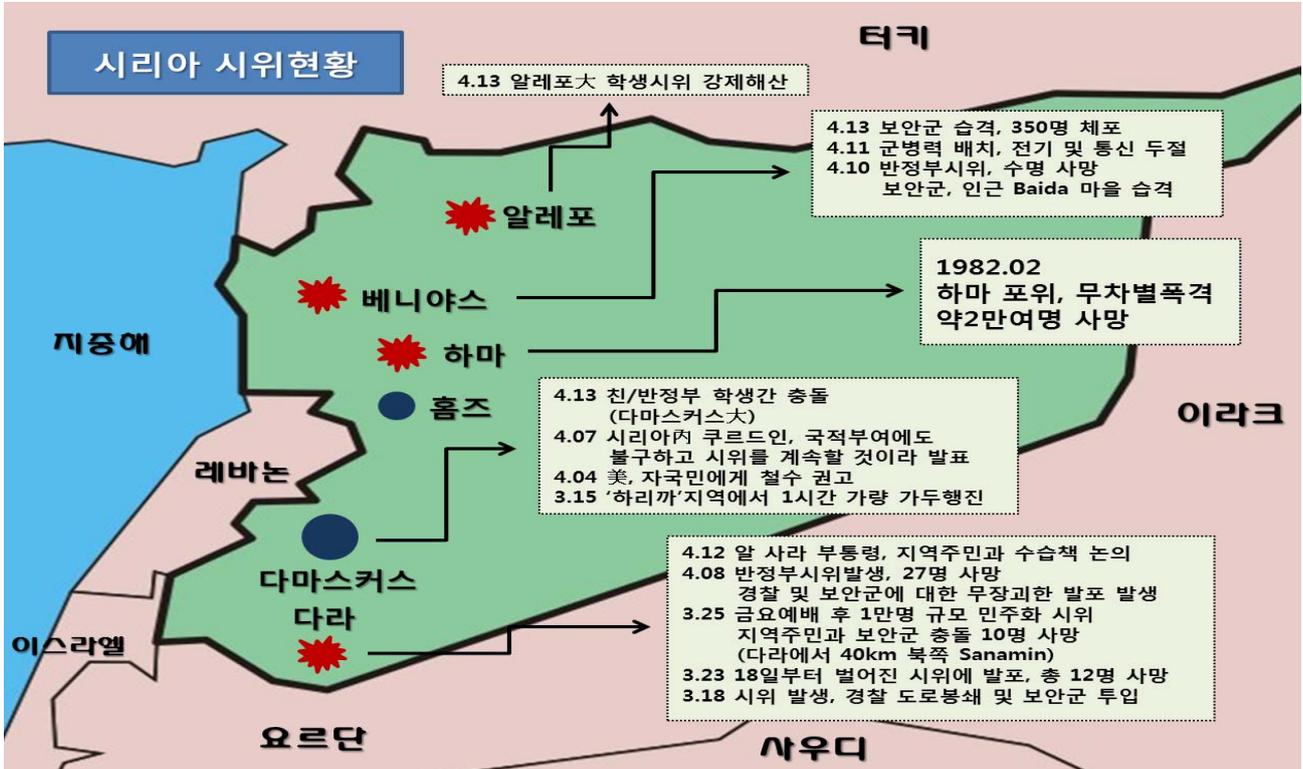
2. 향후 사태 전망

- (시나리오 #1) 시리아 정부, 시위대 요구사항 적극 반영을 통한 정상화
- (시나리오 #2) 시위 장기화 및 반군 무장으로 내전까지 비화
- (시나리오 #3) 수니파와 시아파간 종파 갈등으로 확대

3. 우리기업 유의사항.

-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태 장기화 및 악화 시 수출입 및 진출기업 현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임
- 시리아 바이어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L/C가 한국에서 네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바이어에게 제3국 은행에서 L/C 발행토록 유도
- 시리아 정부 발주 국제입찰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있어, 입찰 재개 일정 등 확인 필요
 - 시리아 정부가 민심수습차원에서 시행을 서두르는 프로젝트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가 요망 → 하수처리 플랜트 등
- 달러화 강세로 시리아 바이어들의 수입 비용 부담 증가로 기존 계약을 취소하거나 오더량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 대비 필요

I 시리아 사태 개요 및 현황



□ 아이들 낙서에서 시작, 전국적 시위로 전파

- 시리아 남부 농업도시 Daraa市에서 위성TV 및 인터넷 등 통해 튀니지와 이집트 시위 소식을 접한 아이들의 반정부 낙서가 시위 발단
 - 체포된 아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에 정부의 유혈진압(3.18)
 - 아이들에게까지 반정부 정서가 뿌리 깊게 퍼져있음을 반증
- 국민들의 억압된 감정이 분출되면서 점차 부정부패 해소, 비상 사태법 폐지, 자유·민주화 등 요구사항이 점진적으로 확대
 - 알레포, 라타키야, 베니아스 등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시위 확산
- 소셜네트워크(SNS) 영향으로 시위가 급속도로 퍼졌던 튀니지, 이집트와는 달리, 낮은 인터넷과 이동통신 보급률로 시위 파급속도는 느린 편
 - 이동통신 보급률 43.56%/ 인터넷 보급률 20.09%/ SNS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차단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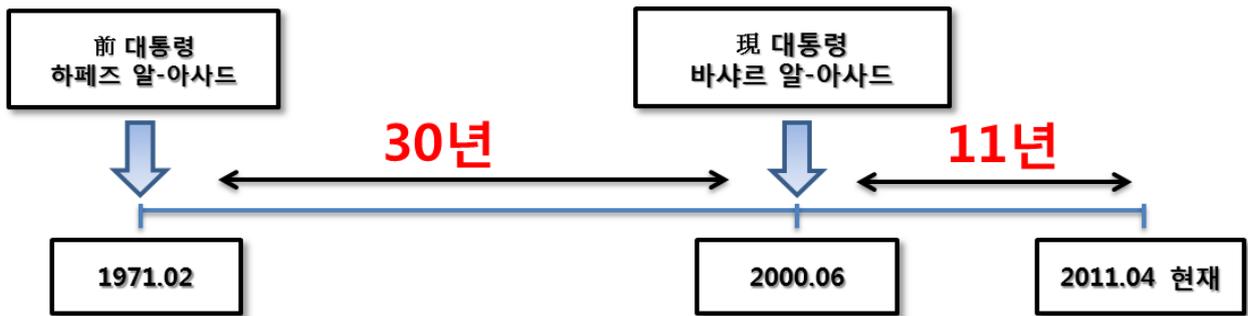
□ 시리아의 내재된 반정부 시위 요인

① 48년간 지속된 '비상사태법(1963년 발효)'

- 시위대의 주요 요구사항으로, 동 법은 공식집회 금지, 개인통신 감청 허용 등 국민의 일상을 속속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
- * 최근 4.19(화), 비상사태법 해제 승인 발표 - 시리아 관영 뉴스 통신 SANA

② 41년의 장기 세습 통치 체제

- 1971년 무혈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-아사드 前대통령 2000년 까지 30년 집권, 사망 후 아들 바샤르 알-아사드 現대통령에게 권력 세습
- 중동 독재국가(군주국 제외) 중 유일하게 정권 세습



③ 다양한 인종 및 종교(종파)의 혼재속에 소수 시아파가 권력 독점

- (인종) 전체 인구의 약 10%가 쿠르드 및 아르메니아인들로 구성
- (종교) 아랍인이 90%에 달하나 수니파(74%)와 시아파(16%)로 분리
- ※ 기독교 및 유대교는 전체 종교인구의 약 10% 차지
- 現대통령이 속한 알-아사드(아랍어로 '사자'를 의미) 가문은 시아파의 알라위파로 국가 권력을 독점
- * 바레인은 소수의 수니파(30%)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다수의 시아파(70%)를 통치

□ 이집트·리비아 사태의 학습효과로 강경·유화책 병행

○ 강경진압에 따른 시위 확산 및 과격화 우려, 유화책 병행

- 4.18(월) 현재 시리아 반정부 시위로 약 200여명 사망자 발생
- 4.17(일) Bashar 대통령 48년간 지속되고 있는 ‘국가비상사태’ 해제 약속

[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]

강경책	유화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.25(금)/26(토), Daraa市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 사용 ○ 4.1(금), 약 2천명의 Douma市 시위대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3명 사망 ○ 4.8(금), Daraa市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보안군이 고무탄과 실탄을 발사하여 27명 사망 ○ 4.9(토), 시리아 내무부, ‘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행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’ 발표 ○ 4.12(화), 보안군은 Baniyas市 인근 Baida 마을을 공경하여 60세 이하 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1명 사망 ○ 4.15(금), 수도 다마스쿠스市에서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 발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.25(금), Bashar 대통령, 체포된 시위대 모두 석방 지시 - Saydnaya 교도소 정치범 260명 석방 ○ 3.27(수), 시리아 언론, Bashar 대통령이 비상사태법’ 폐지 및 내각 전면적인 교체 발표 예정 내용을 보도 ○ 4.1(금), Bashar 대통령, Daraa市 및 Latakia市 등의 시민과 보안군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집권 Baath당은 비상사태법 해제 준비 ○ 4.7(목), Bashar 대통령, 반정부시위가 많이 발생했던 Homs지역 <u>주지사 해임/ 약 30만명의 쿠르드인들에게 시리아 국적 부여</u> 발표 ○ 4.12(화), 시리아 부통령, Daraa지역 주민 대표단을 만나 수습책 논의 및 시위 중단 요청 ○ 4.14(목), Bashar 대통령, 최근 반정부 시위로 구속된 모든 사람들 석방 지시 ○ 4.19(화), 시리아 관영통신 SANA, 비상사태법 해제 승인 보도

○ 리비아 사태로 시리아 정부 및 시위대 대응은 적극, 강경화 추세

- (시리아 정부) 소극적인 다국적군의 개입 및 리비아 카다피군 저항에 영향을 받아, 이집트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하야로 위축되었던 시리아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입장 강경화

- **(반정부 시위대)** 민간인 살상 등 반인륜적 행위 시 UN 등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원 가능성 및 중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반정부 시위대 조직 활성화
- * 따라서, 리비아 사태의 해결 방향이 따라 시리아 정부 및 반정부 시위대의 대응 및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II

시리아 사태 전망

① (시나리오 #1) 시리아 정부, 시위대 요구사항 적극 반영을 통한 정상화

- ⇒ 리비아 카다피 세력 축출 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임
- ⇒ 아직은 대통령 하야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 않고, 정부는 시위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'비상사태법' 폐지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고 있음
- * 단, 시위대 요구에 대해 시리아 정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이행이 관건

② (시나리오 #2) 시위사태 장기화 및 반군 무장으로 내전까지 비화

- ⇒ 시리아 정부의 강경진압과 시위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고, 반군이 무장하여 무력충돌로 돌입되는 시나리오
- ⇒ 사태악화 시나리오에 군부 및 유력 정치인의 반정부 시위대 지지가 필수 요건
- * <고위인사 반정부 사례> Ribal Al-Assad는 현대통령 사촌임에도 반정부 인사로 4.5(화)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화 및 내전 가능성 언급
 - Ribal Al-Assad는 1999년 이후 시리아 입국 금지 상태로 해외 시리아 민주화 운동단체인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Freedom in Syria의 대표를 맡고 있음
- ⇒ 국제사회는 다소 민간인 희생이 있더라도 리비아와 같이 UN 결의를 통한 공식적인 군사 개입을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

③ (시나리오 #3) 수니파와 시아파간 종파 갈등으로 확대

- ⇒ 최근 걸프연안국가인 바레인과 사우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유형이지만 시리아에서 아직까지 시아파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눈에 띄지 않음
- ⇒ 시리아는 이슬람교뿐 아니라 유대교 및 기독교 등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어 수니파와 시아파 두 종파 간 이분화 된 대립구도 형성은 어려울 것
- ⇒ 이란의 시리아 시아파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(반정부 시위대 강경진압)으로 비 시아파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경우는 가능
- *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반정부 시위 열기가 시들어진 분위기

III

현지 동향

□ 아직 경제적 피해는 미미하지만, 사태 장기화 및 악화시 시리아의 수출입 업무 관련 악영향 불가피

- 4.17(금) 기준, 관공서, 은행 및 세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
 - 은행의 예금 인출 러시와 같은 특이현상은 없음
 - * 시리아 중앙은행 총재 ‘인출 러시에 대비한 충분한 외환보유고 있음’ 발표(3.33)
-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달러 인출이 늘어나고 있어 현지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 있음
-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현지 영업에 큰 영향은 없지만 상태 장기화시 항만 및 세관 등의 운영 지장으로 바이어의 수입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
□ 요르단 및 레바논 간 국경도 정상 운영 중

- 한·시리아간 국교관계가 없어 시리아 바이어들이 방한을 위해서는 주레바논 (또는 주요르단) 한국대사관에서 방한 비자를 입수해야 함
- 이를 위해 바이어들이 시리아·레바논, 시리아·요르단 국경을 오가는데 문제없음

IV

우리기업 유의 사항

- 시리아 정부 발주 국제입찰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있어, 시리아 정부 발주 국제입찰 참가준비시 지연 등 사전확인 필요
 - 반면, 시리아 정부가 민심수습차원에서 시행을 서두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 요망 → 하수처리 플랜트 등

- 달러화 강세로 시리아 바이어의 수입비용 부담이 증가
 - ⇒ 기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

 -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리아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향후 시장 안정화시 상호 발전의 기회로 활용

【참고】 시리아 사태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 피해상황 및 의견

* KOTRA, 시리아 수출기업 833개사 중 40개사 표본 설문 결과(4.18.)

- 시리아 반정부 시위 사태로 직접적인 수출 피해는 거의 없음
 - 다만 일부 수출기업은 바이어들이 현지 정세 불안으로 주문량을 줄이거나 향후 사태 악화를 대비하여 미루는 사례가 있음

- 사태의 급격한 악화시에 은행 및 세관/항만 운영 중단 등으로 수출이 중단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

※ 첨부 : 한-시리아 진출기업 및 교역 현황. 끝.

[참고] 한-시리아 진출기업 및 교역동향

1. 시리아 진출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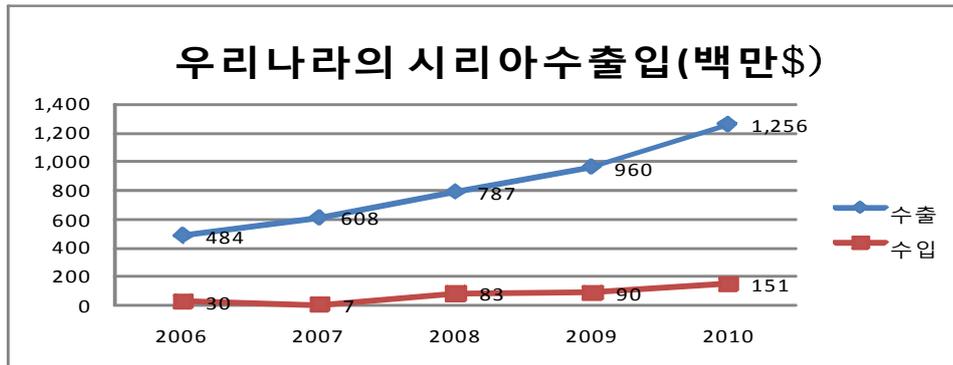
No	회사명	사무실 (또는 현장위치)	진출 형태	업종	근무인원		
					한국 직원	한국직원 가족수	현지 직원
1	에스티삼성	Damascus 외곽	합작법인	제조업	1	1	108
2	LG전자	Damascus	지점	도소매유통	1	3	8

2. 한-시리아 교역동향

□ 무역(백만\$), 2010년 수출기업 수 833개사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
수출	484	608	787	960	1,256
수입	30	7	83	90	151
무역수지	454	601	704	870	1,105

자료원 : 관세청 무역통계



- 수출품목 : 승용차(55.5%), 화물자동차(17.0%), 합성수지(5.0%), 자동차부품(2.2%)
- 수입품목 : 나프타(95.5%)

- 우리나라의 시리아 투자 : 4건 290만불(신고금액 기준)
- 진출기업 : 2개사(합작투자 법인 1 + 지점 1)
- 건설·플랜트 수주실적(천\$)

년도	2008	누계
금액	544	544
건수	1	1

자료원 : 해외건설협회

- 2008년 : 희림종합건축, 시리아 복합단지 마스터플랜 <<<

Kotra Executive Brief 11-010

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

발행인 | 조환익
편집인 | 곽동운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1년 4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우 137-749)
전화 | 02) 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